

‘일상 회복’ 시동...정부, 유류세 인하·소비쿠폰 계획 예정

홍남기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열려

유류세 인하 폭·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 공개

정부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요동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유류세 인하 방안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내수 진작책 가운데 하나인 소비쿠폰 지급 재개 관련 계획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 추가 인하 방안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인하 폭은 15%선에서 결정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1월에도 유류세를 15% 인하한 바 있다. 이를 적용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0당 123원, 87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LPG 부탄의 경우 0당 30원이 내려간다.

일부에서는 이보다 인하 폭이 커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8년 당시 서울 지역의 휘발유 가격(2018년 11월 1주 기준)은 0당 약 1725원이었는데 현재는 1835원(25일 오피넷 기준)으로 이보다 비싸다.

앞으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 7월과 8월 각각 배럴당 72.9달러, 69.2달러를 기록했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72.6달러까지 반등했고, 이달 들어서는 80달러대 초반에

서 거래되고 있다. 이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넘는 것은 7년 만이다.

당분간 공급 부족 현상이 당장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벅크 오브 아메리카(BofA)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길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유류세는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30%까지 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휘발유는 269원을, 경유는 198원을, LPG 부탄은 61원을 깎을 수 있다.

하지만 최대치를 적용하기에는 세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면서 줄어든 세수가 2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치도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은 전일 보고서를 내고 “종량제로 부과되는 유류세를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인하하되,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 사례를 고려해 과감히 20% 이상의 인

하 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쿠폰 사업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축적된 가계 소비 여력을 피해가겠다는 대면 서비스 분야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게 골자다.

계획에 따르면 1차 집중률이 50%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권을 주고, 집중률이 70%에 달하면 숙박·관광·철도·버스 쿠폰을 발행하게 된다.

현재 1차 집중률 70%를 넘어섰기 때문에 해당 조건은 달성한 상태다.

당시에는 밀집도·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역시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쿠폰 지급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영화관람권을 1매당 6000원씩 지원하고, 철도·버스 왕복 여행권도 50% 깎아준다.



24일 오전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되어 있다.

민간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료를 3만원 환급해주는 체육 쿠폰(40만명)과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 관람권을 할인해주는 쿠폰도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10만원씩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과 농수산물을 최대 20% 할인해주는 쿠폰도 발행된다.

한편, 이날 회의 이후에는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도 입 등의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하늘길 열린다”...항공·여행株 ‘힐힐’ 날아올라



‘위드(with) 코로나’ 전환을 준비 중인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한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공개하면서 증시에서 항공, 여행주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에 따라 그간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대한항공은 950원(3.12%) 오른 3만1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1050원(4.56%) 오른 2만4100원에 마감해 강세를 보였다.

이밖에 티웨이항공, 에어부산도 각각 4%대 상승세를 기록했고 제주항공(7.76%), 진에어(6.38%) 역시 급등세를 나타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전환 계획에 따

라 국제선 수요 회복 등 항공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수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앞두고 해외여행 재개 등 본격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여행주에도 매수 자금이 몰렸다. 국내 대표 여행주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각각 6%대 강세를 나타냈으며 노랑풍선은 10% 가량 급등했다. 잠쵸는 여행, 레드캡투어 등도 동반 4%대 상승세를 보였다.

전날 정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위드코로나’ 전환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다음 달 1일부터 ‘4주 운영+2주 평가’ 방식으로 3차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증시 전문가들은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리오프닝(일상회복) 수혜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불투명한 매크로 환경, 이익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시장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매크로와 무관한 테마 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극장, 공연, 여행, 대중 음식점 등 리오프닝 테마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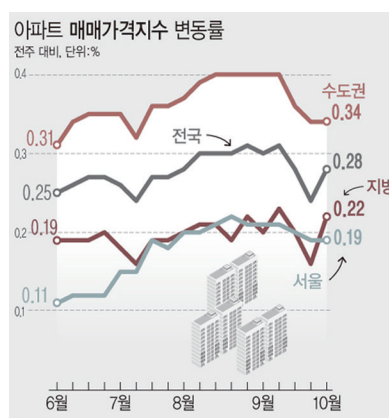
김종원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실내 인원 제한 완화와 다중이용 시설 영업 시간 연장 및 백신 여권 발행 등으로 주요 방역 지점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며 여행과 레저,항공, 미디어, 음식료, 유통 등 리오프닝 관련 업종의 회복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라면서 “지난달 이후 현재 미디어와 여행·레저 업종 지수의 누적 수익률은 각각 11.0%와 3.0%를 기록하고 있어 같은 기간 6.0% 하락한 코스피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향후 위드 코로나 전환이 본격화될 경우 코스피 대비 리오프닝 관련 업종의 상대적 강세가 기대된다”고 내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매물 쏟아진다더니”...양도세 중과에도 ‘매물 잠김’ 심화

세금 부담→증여나 버티기 돌입→매물 부족→수급불균형 심화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 집주인들이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거래가 가능한 매물 자체가 없어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장주로 통하는 ‘래미안대치팰리스’ 단지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은 이미 다 소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이미 자식들에게 증여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갔다”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사실상 끊겼다”고 전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와 달리 시장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주택 수급불균형이 장기화하면서 일정 호가 이하로 팔지 않겠다는 집주인과 집값이 하락하면 매수가 나설겠다는 매수 대기자의 눈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거래 절벽 현상도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 다주택자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강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해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면 정부의 바람대로 부동산 시장의 무게 중심이 본격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최대 40%에서 60%까지 올렸다. 또 2019년 12·16 대책에서는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으로 ‘거주 요건’을 포함했고, 지난해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최대 75%까지 상향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일부터 기존 최고 65%였던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최고 75%로 올랐다.

하지만 정부 기대가 무색하게 양도세 중과를 골자로 하는 7·10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나 버티기에 나서면서 시장에서 매물 잠김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거래 절벽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자의 전체 매도량은 7·10 대책 이전인 지난해 6월 7886건이었으나, 발표 이후인 7월에는 7140건으로 줄더니 8월에는 3342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또 대책 발표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서울 다주택자 월평균 매도량은 4564건이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부터 적용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의 매도량은 4331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 거래량이 급감했으나, 집값이 되레 상승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보유한 아파트를 팔기보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비중이 급증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부족해진 탓이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2591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등록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매매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가장 거래가 많았던 지난 1월(6797건)에 비해서는 약 44% 감소한 것이다. 올해 들어 매매량이 감소세다. ▲1월 5798건 ▲2월 3874건 ▲3월 3789건 ▲4월 3669건 ▲5월 4899건 ▲6월 3945건 ▲7월 4701건 ▲8월 4186건으로 나타났다.

거래는 줄었으나, 증여는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 8298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전체 거래(매매·증여·판결·교환·분양권 전매·기타 소유권 이전 등) 건수(85만 3432건)의 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국에서 아파트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전체 거래 건수 7만4205건 가운데 증여가 1만355건(13.9%)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4년 새 3.6배나 상승했다. 2017년 3.9%, 2018년 9.5%, 지난해 12.2%를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선욱기자

삼성카드, 3분기 순이익 1395억원...전년比 8.9% ↑

시장 지배력 지속적 확대 결과

삼성카드는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8.9% 증가한 1395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삼성카드는 회원 기반 확대와 이용효율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삼성카드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 중심 경영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디지털 채널 개

편 등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3분기 총취급고는 35조9318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이 중 카드사업 취급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 증가한 35조7535억원이다.

각 부문별로는 ▲신용판매(일시불+할부) 31조3848억원 ▲카드금융(장기+단기카드대출) 4조3687억원이다. 할부리스사업 취급고는 1783억원이다.



카드사업 취급고가 증가한 것은 온라인 쇼핑, 백화점, 아울렛 등 소비와 관련된 주요 업종에서의 이용금액이 지속 성장한 것과 코로나로 인해 감소했던 주유와 여행업종 이용금액이 국내여행 재개 등에 힘입어 증가한 영향이다.

30일 이상 연체율은 0.9%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슬비기자

신한카드, 취약계층 결제편의성 위한 ‘햇살론카드’ 출시

오늘부터 신청 가능

신한카드는 지난 3월 발표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및 업무협약에 따라 서민 취약계층의 결제편의성 제고 및 신용카드 이용혜택 향유를 위한 ‘햇살론카드’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햇살론카드는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

하로 개인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 햇살론카드는 연회비가 5000원이며, 다양한 생활 할인혜택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동네 슈퍼·잡화점 등 생활필품 구매가 가능한 중소형 생활유통점(백화점 및 주요 할인점 제외)에서 이용금액의 7%를 할인해준다. 또한 커피·제과점 업종에서 1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주말에는 복합쇼핑몰 및 3대 마트(이마트·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도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월 할인한도는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시 1만2000원, 전월 60만원 이상 이용시 2만원이 적용된다. 신한 햇살론카드는 27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보증신청 및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카드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유나기자